

07
연예보고
08

비엔날레 퍼포먼스 금남로 물들이다

“광주 시민 여러분! 오월 영령을 추모하는 광주비엔날레 퍼포먼스가 열리는 금남로로 모입니다”

광주비엔날레 개막일인 5일 오후 7시,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는 때아닌 가두차량 방송이 울려 퍼졌다. 1980년 5월,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다 죽인다”고 외친 여성의 간절한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1천여 명의 시민들이 하나 둘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제안(Position papers)’ 색선 출판물인 클레어 탄톤스(미국)의 ‘봄’ 퍼포먼스를 펼치기 위해 물러든 시민들이었다. ‘봄’은 5월 항쟁의 뜨거운 열기를 예술행위로 재현해내기 위해 다양한 주제 의상과 스티로폼 등으로 만들어진 조각 작품들을 시민 300여명이 직접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일종의 퍼레이드형 퍼포먼스이다.

이날 퍼포먼스는 재활용 약기로 만들어진 차량을 이용한 ‘노리대’의



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에서 열린 광주비엔날레 ‘봄’ 퍼포먼스에서 조선대 조소과 학생과 시민 40여명이 자바스 로페즈의 작품 ‘CO2 CO2’를 들고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제안 색선’ 5월 민중항쟁 주제 퍼레이드

1천여명 시민들 참여 예술 행위로 승화

생태음악 공연으로 막이 올랐다. 경쾌한 음악이 공연되자 일부 시민들이 라틴댄스를 추기 시작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라틴댄스팀 ‘마안’으로부터 춤을 배운 이들은 퍼포먼스를 보러온 구경꾼들에게 춤을 권유했다. 처음엔 어색한 듯 주저하던 시민들은 경쾌한 음악이 이어지자 자연스럽게

어깨를 들쭉이기 시작했다. 오후 8시가 되자 옛 전남도청 앞에서 참여작가인 자바스 로페즈(브라질), 카이린 올리비에(미국), 말론 그리피스(트리니다드토바고), 마리오 벤자민(아이티)의 작품을 든 300여명의 시민들이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 작품은 지역 미술학도

들이 직접 만들었다. 지구 온난화를 주제로 한 자바스 로페즈의 작품 ‘CO2 CO2’는 조선대 조소과와 한국 화과 학생 10여명이 개막 2주일 전부터 제작했다. 또 말론 그리피스는 조선대 의상학과 학생들과 함께 5월 영령들을 추모하는 흰색 옷 100여벌을 제작해 입고 금남로를 행진했다.

1시간 30여분 동안 계속된 거리 행렬은 중국 전통 장례식에 쓰이는 수레를 형상화한 맵오피스의 작품을 태우면서 절정에 달했다. 이날 퍼포먼스 참가자들은 80년 5월 금남로를 가득 메웠던 5·18 햇볕시위를 연상시키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아론(조선대 조소과 4학년)군은 “비엔날레 참여작가와 함께 작품을 만들어 개인적으로 유익한 경험을 했다”면서 “광주비엔날레가 5·18을 예술퍼포먼스로 재생산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K의원 부인 계좌서 뭉치돈

검찰, 광주 북구의장 선거 뒷돈 의혹 수사...의장실 등 압수수색

광주 북구의회의 의장선거 뒷돈 의혹을 수사중인 광주지검은 구속된 최운초(63)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국회의원 K씨의 부인 J씨(55)씨의 금융계좌에서 뭉치돈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최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관용차 등에서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하고, 뒷돈의 사용처와 대가성 여부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최 의장으로부터 청탁성 돈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J씨의 계좌에서 5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목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용처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또 “J씨가 받은 돈이 남편인 K의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아니면 북구의회 의원들에게 의장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인지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J씨는 현재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면 재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혀 파장이 커질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최 의장이 건넨 돈이 J씨를 통해 북구의회 의원들에게 흘러들어 갔

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고, 현재까지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또 뒷돈 의혹과는 별개로 K의원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미납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건을 배당받은 공안부는 K의원 이 세금을 미납한 경위와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했는지 등을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일·인현주기자 cki@kwangju.co.kr

“선거법 위반한 적 없다”

김재균 의원 전면 부인

4·9 총선 후보등록 당시 채무를 불성실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5일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적도, 선거법을 위반한 적도 없다”며 “검찰은 정치적 음해세력을 반드시 발본색원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양도소득세를 누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총선 후보등록서류에 첨부한 국세청 납세증명서가 확인해 주고 있다”며 국세청의 납세증명서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정치적 반대·음해세력이 있을 수 있지만 음해세력의 말만 믿고 정치인의 명예를 짓밟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지철기자 dok2000@kwangju.co.kr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도 함께 주목

유장관, 총감독 이름 잘못 불러 해프닝

행사 첫날 이모저모

○“광주비엔날레가 개막되면서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바로크 미술의 거장 피터 폴 루벤스(Peter Paul Rubens·1577~1640)의 대표작을 소개하는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7월16일~11월9일)’에도 관람객들의 관심이 집중.

이번 전시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든 마타 클락의 작품이 전시된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현대 미술의 진수와 바로크 고전 미술의 아름다움을 한 장소에서 맛볼 수 있기 때문.

○“제7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직후인 5일 오전 11시30분께 1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과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전시장으로 몰리면서 일대 혼란.

오쿠이 엔취예 예술총감독은 직접 관람객을 안내하면서 작품 설명을 했지만, 많은 인원이 몰리는 바람에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데다 통역도 원활하지 못해 감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특히 관람객들이 서로 밀리면서 돌로레스 지나·후안 마이다간의 작품 ‘광주의 모형’ 등 바닥에 설치된 작품을 발로 밟는 일도 일어나는 등

전시장은 한 때 통제 불능 상태. ○“5일 개막식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축사를 하던 도중 비엔날레 예술총감독의 이름을 잘못 말하는 해프닝을 연출.

유 장관은 “광주비엔날레는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현대미술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예술을 통해 세계인이 하나가 되고 문화의 질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축사. 하지만 오쿠이 엔취예 총감독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총감독의 성(姓)인 ‘엔취예’를 ‘엔조이’라고 잘못 발음한 것.

○“제7회 광주비엔날레 개막 첫날인 5일 관람객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작품은 알로라·칼자달라의 ‘감정의 참견물’, 조동환·조해준의 ‘미군과 아버지’, 한스 하케의 ‘넙고 하얀 흐름’, 고(故) 백남준의 ‘고인돌 공원’.

개막 직후부터 이 작품들 주위에 접 관람객을 안내하면서 작품 설명을 했지만, 많은 인원이 몰리는 바람에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데다 통역도 원활하지 못해 감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알로라·칼자달라의 작품은 큰 규모와 기이한 조각 형태로 관람객들의 사진 촬영이 끊이지 않아 안내원들이 자제를 요청할 정도.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나원침 (7597) 김동두



음주 사고 도주 피의자

무혐의 처리 경찰관 해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의자를 봐주려 한 경찰관이 해임됐다.

광주북부경찰청 5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교통과 A경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4월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B씨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음주 운전 부분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A경사는 당시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로 측정됐으나 “귀가한 뒤 술을 더 마셔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드마크(Widmark)를 적용,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4%로 기록했다.

A 경사는 이 과정에서 B씨가 마차 집에서 술을 마신 것처럼 찍은 사진을 조서에 첨부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 대가 발령됐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한 집 1년새 3번 도둑 맞아

상나팔

○“광주시 남구의 한 주택에서 1년 동안 3번의 사건이 세 차례나 발생했지만 범인은 오리무중.

○“광주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12시30분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남구 백운동 A(31)씨의 집에 도둑이 들어와 11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귀걸이 등을 훔쳐갔다.

○“이에 앞서 A씨의 집은 이미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등 수백만원에 달하는 도난사고가 잇따랐지만 경찰은 범인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A씨는 “범씨 세 차례나 절도범이 다녀갔지만 경찰은 단서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등 수사가 너무 엉성해 보였다”고 불만을 터뜨렸으며, 경찰은 “과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니 이르면 시일 내에 절도범을 검거하겠다”고 해명.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CC (주)금복시스템, featuring a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for real estate services.

Weather forecast for September 6th (9월 6일) and 7th (9월 7일). Includes a map of Korea with weather icons for various regions and a table of daily weather details.

여수서 학생·교사 67명 학교 급식 먹고 집단 복통

여수 S초등학교 학생과 교사 67명이 복통을 호소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3일 새벽 S초교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는 이래 비슷한 증상의 학생·교사들이 속출, 학교 급식을 이용하는 1천2백여명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일 현재 67명의 환자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학생 3명과 교사 1명 등 4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전남도는 첫 환자가 3일 새벽에 나온

것으로 미뤄 개학일인 1일과 2일 학교 급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학교의 1일 급식메뉴는 콩국수와 전만두, 밥, 단무지, 꿀 등이었고, 2일에는 쇠고기미역국, 갈치구이, 콩나물무침, 떡볶이, 꿀, 팥밥 등이 제공됐다.

S초교는 환자 발생 이후 급식을 중단하고 건물 주변에서 방역활동을 벌였으며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여수시 보건소는 환자들의 가검물을 수거, 분석 중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주말·휴일 무더위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주말인’ 6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구름이 많이 끼겠

며 일부 지역은 비가 조금 내리겠다”며 “하지만 낮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9월 날씨답지 않게 더운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휴일인 7일도 구름이 조금 끼겠으나 낮 최고기온이 28~31도에 이르는 등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중 조기 330t ‘영광 굴비’ 둔갑

경찰, 도매업자 등 일대 검거

추석을 앞두고 중국산 수입 조기를 국내산 유명 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중국산 조기 수백t을 구매해 뒤 가공처리해 국내산 유명 굴비로 속여 수도권 일대에 유통한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도매업자 임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홍모(48)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9월 2일부터 올 2월까지 중국산 수입 조기 334t(3만2천700상자)을 구입해 영광의 가공공장에서 녹여 포장처리한 뒤 냉동건조해 국내산 ‘영광굴비’로 둔갑시켰다.

경찰은 이들이 20마리씩 묶은 16만 두를(11억원 상당)을 판매해 2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소사결과 이들은 중국산 냉동조기 9kg짜리 1상자를 2만~4만원에 구입해 4~5두름으로 가공한 뒤 1두름에 1만원을 받고 서울과 경기 일대의 소매상들에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환수

니주 드물길 40대 女 의사체

5일 오전 10시45분께 나주시 남평읍 드물길 유원지 강변에서 광주시 동구에 거주하는 송모(여·46)씨가 물에 빠진 채 숨져있던 것을 낚시꾼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송씨는 발견 당시 옷을 입은 채로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씨가 의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주변 정황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수년동안 친딸·의붓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아버지 구속

자신의 친딸과 의붓딸을 수년 동안 성폭행해온 인면수심의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 남성의 패륜 행각은 친 딸이 중학생이었던 10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4년 전부터 강제추행한 의붓딸 또한 현재 중학교 1학년에도 재학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적이다.

광주서부경찰청 4일 자신의 친딸과 의붓딸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영업을 택시운전사 김모(48)씨를 친족관계에 의한 간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으며, 경찰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친딸도 성폭행 당했을 수 있다고 보고 친딸을 찾아가 설득한 끝에 사건의 진말을 밝혀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제추행한 혐의다. 김씨는 또 4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가 집을 비울 때마다 의붓딸(13)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친딸이 간혹 집에 찾아올 때도 친딸을 성폭행했으며, 친딸에게 변태행위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만행은 의붓딸을 성폭행하려던 것을 목격한 동거녀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으며, 경찰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친딸도 성폭행 당했을 수 있다고 보고 친딸을 찾아가 설득한 끝에 사건의 진말을 밝혀냈다.